

지역 매 아리

김제시, 개인정보 취급관리 강화

개인정보 접속기록관리 시스템 구축

김제시(시장 박준배)는 최근 시민들의 개인정보 유출 및 오·남용을 방지하고 공무원들의 적법한 개인정보 취급관리 강화를 위해 '개인정보 접속기록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번에 구축한 '개인정보 접속기록관리 시스템'은 주민등록시스템을 비롯한 16개 내부행정 시스템에 직접 연결하여 개인정보 열람과 인쇄 등 접근이력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관련 자료를 1년 이상 보관하게 된다.

또한 접속기록의 자동 분석을 통해 위협 요소를 추출하여 알려줌으로써 무분별한 개인정보 취급과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게 해준다.

김제시 관계자는 "시스템의 내실있는 운영과 함께, 공무원들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 교육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시민들의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김산동 주민자치위원회

사랑의 텃밭 가꾸기 구슬땀

김제시 김산동 주민자치위원회(위원장 임종기)는 지난 19일 주민자치위원회와 김산동행정복지센터 직원들이 함께 관내 어려운 이웃에게 나누어 줄 사랑의 고구마 식재 작업을 하며 구슬땀을 흘렸다. 김산동 주민자치위원회는 매년 특화사업으로 텃밭을 가꾸어 마을경로당과 독거노인, 관내 시설 등 사랑의 손길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정성들여 가꾼 농산물을 전달하며 지역공동체 조성에 앞장서고 있다.

임종기 주민자치위원장은 "지역 어르신들과 어려운 이웃과 함께 고구마를 나눌 생각을 하니 벌써부터 마음이 기쁘다"며 "앞으로도 소의계층을 돌보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운수 김산동장은 바쁜 영농철에도 사랑의 텃밭가꾸기에 함께해 준 주민자치위원들의 노고에 감사하며 "사랑의 텃밭 가꾸기를 통해 어려운 이웃과 함께하는 훈훈한 정을 나누는 문화를 지속적으로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거점 행복학습센터 본격 운영

완주군, 가족문화교육원, 미디어센터, 원이문마을 빵공방 진행

완주군 주민들은 거주 공간 곳곳에서 평생학습을 배울 수 있다. 완주군은 상반기 거점 행복학습센터 프로그램이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고 지난 19일 밝혔다.

행복학습센터는 지역 내 유휴공간을 활용해 군민들이 원하는 것을 배울 수 있도록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평생학습 공간이다.

이번 거점 행복학습센터는 가족문화교육원(용진읍), 미디어센터(고산면), 원이문마을 빵공방(이서면)에서 운영되고 있다.

상반기 프로그램은 총 5개 과정으로 가족문화교육원에서는 캐리커쳐, 팟아트, 초록식물 가드너, 해외배낭여행플랜 과정이 운영되고, 미디어센터에서는 사진입문 과정이 진행된다.

또한, 원이문마을 빵공방에서는 홈베이킹 과정을 배울 수 있다.

이 중 초록식물 가드너 과정은 최근 관심분야인 쾌적한 실내환경을



완주군은 용진읍, 고산면, 이서면에서 상반기 거점 행복학습센터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위한 식물소품을 제작하는 원예활동 수업이고, 해외배낭여행플랜 과정은 여행의 준비와 계획방법을 배워 해외여행을 독자적으로 갈 수 있는 역량을 키우는 특별한 분야다. 현재 행복학습센터 프로그램은 지

역주민들의 큰 호응 속에 일부 과정이 조기 마감되는 등 성황리에 운영되고 있으며, 하반기에도 다양한 분야의 프로그램이 운영될 예정이다.

/완주=이중복 기자

김제시 우수 농·특산물 수도권 공략

농업기술센터, 서울 노원구 '2019 태·강릉문화제' 참가... 소비자 인지도 높여

김제시 농업기술센터(소장:김병철)에서는 지난 20일 서울특별시 노원구에서 노원문화원·조선왕릉문화벨트 콘텐츠사업추진단 주관으로 조선왕릉의 세계문화유산 등재 10주년을 기념하여 개최되는 2019년 태·강릉문화제에 참가하여 김제시에서 생산되는 우수 농·특산물(지평선브랜드 외) 60여개 품목 전시, 문화제 관람객을 상대로 전시·홍보에 나섰다.

이번 문화제에서 전시·홍보하는 품목은 자연의 신선함을 그대로 소비자의 식탁에 배달해 드리기 위하여 엄격한 품질관리를 통한 생산에서 판매까지 관리하는 지평선 공동브랜드 8개 품목(쌀·배·파프리카·포도·감자·한우·한돈·보리)과 김제시 관내에서 생산·가공되는 농·특산물을 판매하는 지평선몰(www.jpsmall.com)에 입점한 업체 중 엄선한 52여개(잡

곡류·장류·누룽지·기호식품 등) 품목이다.

신형순 먹거리유통과장은 "이번 행사와 같이 수도권에 관내에서 생산되는 지역 농·특산물을 전시하고 홍보함으로써 김제시의 신선하고 품질 좋은 농·특산물에 대한 이미지 향상을 도모하고 향후 판매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고 말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완주군, 농업재해 대비 관계 공무원 역량강화

완주군이 농업재해를 대비해 읍면 담당자들의 역량을 강화했다.

완주군은 최근 농업기술센터에서 이상 기상현상에 따라 빈번히 발생하는 농업재해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담당자 역량 교육을 진행했다고 지난 19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농업재해 초기 피해현황 파악 및 농작물피해 조사 등 일선 현장에서 수행해야할 내용을 중심으로 읍·면담당자 및 관계 공무

원 15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뤄졌다.

이 자리에서 농업재해 지원제도와 품목별 대응요령에 대한 정확하고 객관적인 실무능력 배양을 위해 재해조사 관련 준수사항, 작물별 주요 피해유형과 재해대장 작성 요령 및 NDMS 활용 방법 등을 교육했다.

또한, 재해 발생 시 농업재해 복구비 지원과 관련해 정확한 안내와 소통으로 농업인들을 이해시킬 수 있

도록 교육이 이뤄졌다.

고석수 기술보급과장은 "이번 교육으로 관계 공무원들이 농업재해 피해를 입은 농가에 급전적 보상뿐만 아니라 아픔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피해 농가와 소통과 공감대 형성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완주=이중복 기자

구독·광고문의 288-9700



김제시장애인종합복지관은 제39회 장애인의 날 행사에 앞서 지난 17일 서암사거리와 터미널사거리에서 장애인식개선을 위한 거리캠페인을 진행했다.

"더불어 행복한 사회 만들어"

김제시 제39회 장애인의 날 기념 행사 개최

김제시장애인종합복지관(관장 강정완)은 지난 20일 장애인의 날 주간에 맞이하여 장애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해 장애인식개선 캠페인, 가족명랑운동회, 장애인권한마당을 진행했다.

지난 17일 아침 출근시간을 이용하여 서암 사거리와 터미널사거리에서 김제시민의 장애인식개선을 위한 거리캠페인을 시작으로 김제시청, 김제경찰서, 김제교육문화회관의 협조를 받아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더불어 행복한 사회!' 내용으로 하는 전광판 캠페인도 병행하고 있다.

또한 20일 오전 10시에는 김제시장애인체육관 강당에서 김제시 장애아동 형제 및 가족 100여명을 대상으로 가족의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제7회 하하호호 가족명랑운동회"를 개최하며 다양한 놀이와 운동 및 가족노래자랑, 경품추첨 등이 계획되어 있다.

이번 명랑운동회는 개최식 후 행사전문 MC의 진행 하에 가족 간의 어색한 분위기를 해소하고자 몸 풀기를 통한 친선경기 후 대

사대회, 정식제과, 가족노래자랑, 경품추첨, 폐회식 등 5개의 프로그램으로 진행했다.

이어 24일에는 김제 축산초등학교에서 김제지역 초등학생들의 장애인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기 위해 김제초등학교, 용지초등학교, 축산초등학교 성덕초등학교 4개 학교가 참여하는 가운데 "2019 품으로 김제장애인권한마당"을 진행할 예정이다.

김제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 김제시장애인종합복지관, 수어통역센터, 전라북도발달장애인지원센터, 전라북도보조기기센터와 공동 주관하며 각 기관별 기능과 역할에 맞는 장애인식개선 체험을 내용으로 운영된다.

강정완 관장은 "복지관을 이용하는 분들에게는 행복한 나라 찾고 건강한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하며, 지역사회에서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더불어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장애인복지관의 소명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완주군, 냉방기 일제 정비 실시... 관내 275개소 대상

완주군이 관내 무더위쉼터 일제정비를 완료하고, 폭서기 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완주군은 여름철 폭서기를 대비해 2월 말부터 관내 무더위쉼터 275개소에 대한 냉방기 일제 정비를 실시해 최근 완료했다고 지난 19일 밝혔다.

이번 점검에서는 에어컨 작동유무 확인, 필터 청소 및 소독 실시, 에어컨 가스충전 등이 이뤄졌다.

무더위 쉼터는 여름철 폭염기간에 어르신 및 고령자 등 취약계층이 더위를 피해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개방하는 공공시설로, 완주군은 현재

275개소 경로당을 지정 운영하고 있다. 또한, 완주군은 주민 안전강화를 위해 폭염대비 종합대책 수립 및 폭염대응 TF팀을 구성해 폭염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폭염특보 발효 시에 경보시스템을 활용해 기상상황 전파와 폭염대비 행동요령 홍보와 무더위쉼터·그늘막 설치와 공사장, 작업장 등 야외현장 예방활동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동열 재난안전과장은 "지속적인 폭염 관리 대책을 실시해 어르신들이 무더위쉼터에서 안전하고 건강한 여름을 지낼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완주=이중복 기자

지구를 시원하게 식혀주는 에너지 절약 실천 방법

1. 사용하지 않는 전기제품은 플러그에서 뽑기
2. 전기세가 많이 나오는 제품 아껴쓰기
3. 겨울철 실내 온도를 20도로 유지하고 내복 입기
4. 전기 사용량이 많은 시간대에는 전기 사용량을 줄이기

▶ 전주매일 에너지캠페인